

## 우리나라 물리치료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구봉오 · 박민철<sup>1</sup> · 이명희<sup>2</sup> · 송유익<sup>3</sup> · 조예림<sup>3</sup>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sup>1</sup>부산대학교병원 물리치료실,  
<sup>2</sup>대구보건의대학 물리치료과, <sup>3</sup>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물리치료학과

### The Review on Physical Therapy Curriculum in South Korea

Bong-oh Goo, PT, PhD, Min-chull Park, PT, PhD<sup>1</sup>,  
Myoung-hee Lee, PT, PhD<sup>2</sup>, You-ik Song, PT<sup>3</sup>, Ye-rim Cho, PT<sup>3</sup>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up>1</sup>*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up>2</sup>*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sup>3</sup>*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urriculums of physical therapy education.

**Methods** : We identified the curriculums of physical therapy education by internet.

**Results** : In Korea, education on physical therapy started as a two-year program in 1963, and recently reorganized as three or four years programs. Currently some ten schools offer physical therapy programs for master's and doctor's degrees. The member countries of the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WCPT) provide approximately ten types of education programs that take two to six years. In Korea, the same programs have three or four years of education periods. The Americ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APTA) launched on the doctor of physical therapy (DPT) course in the late 1990s, encouraging physical therapists to acquire a doctorate degree. In addition, the U.S. Vision 2020 envisions that all physical therapists acquire DPT by the year 2020. As the medical field becomes more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physical therapists are expected to supplement and even replace works of doctors, instead of merely assisting them.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ducation programs and improve related school systems to enhance status of physical therapis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social needs and to provide quality service to patients.

**Conclusion** : We suggest to change the curriculum of Korea. It is more accurately reflected the scope, depth, breadth, and rigor of the high-quality education preparation needed for current and future practice.

---

**Key Words** : Physical therapy, Curriculum, DPT

## I. 서 론

교육과정 또는 커리큘럼(curriculum)은 일정한 교육의 목적에 맞추고, 교육 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은 단지 교육과정의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로 교육의 목적과 교육 내용, 교수 활동 및 자세까지 확장하여 말할 수 있으며 교육 접근 자세 자체도 커리큘럼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의 커리큘럼은 본래 라틴어의 *Curere*에서 유래한 용어로 말이 달리는 길(경주)로 의미를 지닌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은 경주로를 ‘(경주로를 따라) 달리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인생행로에 대한 해석으로 본다(위키백과).

물리치료사는 보건의료 전문직으로서 포괄적인 의료기술을 제공하며 환자의 건강관리 및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세계물리치료사연맹). 우리나라는 1945년 미국인 선교사이며 물리치료사였던 *Thelma Maw*(한국명: 모우숙)에 의해 최초로 물리치료가 도입되었다(배성수와 박래준, 1998). 그 후 1965년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설립되었고 현재 세계물리치료사연맹의 *Asia Western Pacific* 지부에 속해 있으며 협회 산하 16개 시·도회와 24개의 학술단체가 소속되어 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63년 고려 대학 보건 전문대학의 전신인 수도 여자 의과대학 병설 의학 기술초급대학에 물리치료과가 개설되어 물리치료를 위한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까지 2년제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1991년 물리치료과의 학제가 2년에서 3년제로 바뀌면서 임상실습시간과 교육내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재활과학과에서 4년제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동시에 교육하였으며 1991년 이후 물리치료전공과 작업치료전공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88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에서 처음으로 물리치료학과라는 명칭으로 물리치료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 현재 3년제 대학 37개교, 4년제 대학 37개교에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17개 대학에서 대

학원을 개설 중이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은주 등, 1998; 배성수와 박래준, 1998). 현재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교육이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국가고시 응시자격에 또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박재용, 2008).

미국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비전 2020을 통해 2020년까지 모든 물리치료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미국물리치료사협회). 이런 의료 선진국의 제도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를 통해 세계적인 물리치료를 위한 5대 비전에서 단독개업, 직접평가, 세계 표준화 준비, 전문물리치료사 제도화와 더불어 물리치료박사 학위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러한 방향성의 제시는 급변하는 세계 보건의료계의 환경과 세계적 동향에 발맞춰 나가고자 하는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들의 의지이자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학제 증진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물리치료의 정책수립 및 경쟁력있는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전 세계적으로 물리치료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의 교과과정은 나라별로 다양하다. 세계 물리치료연맹 가입 한 101개의 국가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2년제에서 5~6년제에 이르기까지 10여 종류의 교육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3~4년제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1. 외국의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세계물리치료 연맹에 가입되어져 있으며 각 나라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년제부터 3~4년제 그리고 5~7년제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특색에 맞게 약 10여 종류 이상으로 교육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대한

물리치료사협회). 푸에르토리코와 스리랑카가 2년제, 유고슬라비아가 2.5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케냐,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에서 3년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 3~4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5~6년제, 폴란드에서 5.5년제를 도입하고 터키에서 4~5년제의 학제를 도입하고 있다.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몇 나라에서 5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4~5년제, 필리핀에서 5년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3년제 및 4년제 물리치료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가입 국가에서는 대부분 3년제 이상에서 6년제까지 물리치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

## 2. 미국의 Doctor of Physical Therapy 제도

미국의 경우 최근에는 한국에서의 교과과정과 같이 대학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국가고시를 치고 물리치료사가 되는 시스템이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대학 졸업 시 까지 일정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과정(MPT; Master of Physical Therapy)과 박사과정(DPT; Doctor of Physical Therapy)을 수료한 이들에 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물리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경 등, 2006).

물리치료 박사(Doctor of Physical Therapy, DPT)란 전문교육 프로그램 또는 전문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수여되는 학부과정 후 학위이다. DPT는 “professional”, “transition”과 “advanced clinical science” DPT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전문적인 “임상 박사학위”로서 MA, MS, PhD와 같은 연구과정과는 다르다. 박사과정 중 연구중심 과정(PhD; Philosophy of Physical Therapy)은 학사과정이나 석사 과정에서 물리치료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김경 등, 2006).

“professional” DPT는 학부졸업 이후 과정으로 물리치료사 전문교육(기초과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받는 학위이다. 타 전공의 일반 학부를 마치고 입학하여 3년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Post-professional DPT “transition”

은 예전 방식의 물리치료교육 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주어진 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Advanced clinical science” DPT는 post-professional DPT “transition”을 이수한 경우에 수여되는 학위 중 하나이다. 이 과정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임상 연수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전문 이수증을 수여하고 있다.

미국 물리치료사협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물리치료박사(DPT) 과정을 개설하여 물리치료사의 박사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있으며 비전 2020을 통해 미국 내 모든 물리치료사가 2020년까지 물리치료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미국물리치료사협회). 또한 공인물리치료교육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in Physical Therapy Education)에서는 2002년 이후 학부과정을 더 이상 인가하지 않고 있으며 임상박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인가하고 있다.

미국 물리치료협회에서는 DPT과정이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에서는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수준의 물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쉽게 얻어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개업을 하고 있는 보건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에서 언급하는 임상박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셋째, 환자에게 근거중심치료의 관점에 맞는 임상치료기술을 습득하여 적용하여야만 적당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업을 한 물리치료사가 의사, 약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많은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이미 임상박사학위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제의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3. 우리나라 물리치료 교육과정

세계물리치료사 연맹에서 권장하고 있는 전공과

목에 대한 최저 이수 시간 수는 총 3,150시간으로 기초의학과목이 400시간, 임상학과목이 270시간, 물리치료 980시간, 임상교육이 1,500시간을 차지하고 있다(김은주 등 1998).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3년제 대학에서 37개교가 전문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37개교에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되어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17개 대학에서 대학원을 개설하고 있으며 5개교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은주 등, 1998; 배성수와 박래준, 1998). 3년제 대학 물리치료과에서는 120학점 이상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양/전공 편성비율은 15학점/105학점이고 임상실습 편성 비율은 8주/10학점이며 이수과목은 48개 과목이상이다. 4년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전공 편성비율은 25학점/115학점이며 1학기/15학점의 임상실습 편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64개 교과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있다(대한물리치료사 협회)(부록 2).

### III. 학제 증진의 필요성

#### 1. 세계화된 선진 물리치료를 원하는 사회로의 변화

물리치료 교육은 인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회복을 위한 평가와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Wilcox & Weber, 2005).

세계는 이미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었고, 인터넷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의학정보는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자료는 누구를 막론하고 열람하고 조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발맞춰 물리치료 교육의 형태도 3년에서 4년으로, 국내에서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거나 교육하려는 수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치료사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확립된 이론과 과학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평생 학습기술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임상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에 대응하려는 세계적 추세이다(김경 등 2006). 김은주 등(1998)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물리치료

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직업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치료기술 습득을 위한 전공기초과목에 대한 교육과 전공과정에 대한 심화과정이 필요하며 점차적으로 학제를 5~6년제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며, 배성수와 박래준(1998)은 국민은 양질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제도를 운영하여 교육을 심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며 학교 교육에서 실습과 임상실습 교육의 시간배정을 증가시켜 학제를 5~6년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 등(2006)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새로운 이론과 치료법의 전달을 위하여 항상 열려있어야 하고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습득한 물리치료에 대한 지식이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물리치료 박사과정(DPT)과 같은 임상전문가를 위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세계물리치료사연맹, 위키백과).

#### 2. 물리치료사의 위상 정립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의사의 지도하에 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다(의료기사법). 실제 세계물리치료연맹의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물리치료는 독립적인 물리치료법안도 존재하지 않고 환자에 대한 직접 접촉권도 없으며 개업권도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것은 3~4년의 학교교육을 마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각종 전문학회에서 전문치료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하여 보건의료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의료사회에서 의료기사 등은 의사의 보조자의 역할을 벗어나 의사를 보완·대체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와 내용, 면허 및 자격요건 등이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개방과 더불어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업의 제도정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하위법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외국의 경우 3년 미만의 학교교육 제도를 개설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2.5년), 스리랑카(2년), 푸에르토리코(2년)의 경우에도 자립 개원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제의 증진이 직접적으로 자립개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독립법안, 직접 접촉권, 개업권 중 어느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물리치료 후진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5~6년제로의 학제 증진을 통한 학력강화와 학위 취득은 더 이상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보조자가 아닌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와 관련한 각종 건강 전문가들과의 차별화를 사회적으로 공인받고 인식시킴으로서 물리치료사의 위상 정립에 기여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물리치료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물리치료사들은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투자하여 각종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것이 개인의 역량 개발이란 명목으로 당연시 되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3~4년에 걸쳐 이루어진 학교교육이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기초 이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정규 교육만으로는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평가하고 치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치료사 개인의 치료기술에 대한 역량과는 상관없이 특정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보험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제도 또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치료사 개인의 시간적 금전적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 기초 이론 지식과 실습 그리고 임상실습교육의 시간 배정을 증가시켜 학제를 5~6년제로 연장하는 것이 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련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설하여(배성수와 박래준, 1998) 일정 기간 정규 과정을 이수한 모든 치료사에게 보험수가 청구에 대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면 각 개인으로서의 물리치료사 자질 향상이 아닌 물리치료 면허를 가진 모든 물리치료사 전체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은 물론 물리치료사의 질적향상과 지위 향상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IV. 결 론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교육은 1963년 2년제 학교 교과 과정으로 시작되어 최근에 이르러는 3~4년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현대의료사회의 변화에 부합하고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여 물리치료사의 위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과정의 강화와 학제의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나아가 물리치료사의 자립 개원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김경, 박은세, 조용호 등. 한국 물리치료 과정의 표준교과 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6;18(6):23-32.

김은주, 남재만, 이승민 등.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8;10(1):241-51

대한물리치료사협회 (<http://www.kpta.ac.kr/>)

미국물리치료사협회 (<http://www.apta.org/>)

박재용. 한국 물리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 KPTA

NEWS. 2008;137호  
배성수, 박래준. 한국 물리치료의 현황과 진로. 대한  
물리치료학회지. 1998;10(1):223-7.  
세계물리치료사연맹 (<http://www.wcpt.org/>)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Wilcox KC & Weber MA Factors influencing  
applicant selection of entry-level physical therapist  
educ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J Allied  
Health. 2005;34(1):11-6.

## 부 록

표 1. OECD 가입 국가별 교육, 법률, 업무형태 비교

(출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번호	나라명	교육기간	독립법률	직접치료	개업유무
1	미국	4-5년	Yes	Yes in 32주	Yes
2	캐나다	3-4년	Yes	Yes	Yes
3	멕시코				
4	오스트레일리아	4년	Yes	Yes	Yes
5	뉴질랜드	4년	Yes	Yes	Yes
6	일본	3-4년	Yes	NO	NO
7	대한민국	3-4년	NO	NO	NO
8	터키	4-5년	NO	NO	Yes
9	오스트리아	3년	Yes	NO	Yes
10	체코	3년	Yes	Yes	Yes
11	덴마크	3-3.5년	Yes	Yes NO	Yes
12	핀란드	3.5년	Yes	Yes	Yes
13	프랑스	3년	Yes	NO	Yes
14	독일	3년	Yes	Yes NO	Yes
15	그리스	4년	Yes	NO	Yes
16	이탈리아	3년	Yes	Yes	Yes
17	네덜란드	5-6년	Yes	Yes NO	Yes
18	노르웨이	4년	Yes	Yes	Yes
19	폴란드	5.5년	Yes	Yes	Yes
20	포르투갈	3년	Yes	Yes	Yes
21	스페인	3년	Yes	Yes	Yes
22	스웨덴	3년	Yes	Yes	Yes
23	스위스	4년	Yes	Limited	Yes
24	영국	3-4년	in publicsector	Yes	Yes
25	벨기에	4년	Yes	NO	No data
26	룩셈부르크	3-4년	Yes	NO	Yes
27	헝가리	4년	Yes	NO	Yes
28	아일랜드	4년	Yes	Yes	Yes
29	아이슬란드	4년	Yes	Yes. NO	Yes

표 2. 물리치료(학)과 표준 교과과정

(출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구분	교 과 목		학점	시 간	
	한글명	영문명		강의	실습
전 공 필 수	임상운동학	Clinical kinesiology	3	3	0
	해부학	Human anatomy	3	3	0
	운동치료학	Therapeutic exercise	3	3	0
	질환별물리치료학	Physical therapy for disabled	3	3	0
	수치료학	Hydrotherapy	3	3	0
	측정 및 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3	3	0
	물리치료학 개론	Introduction to physical therapy	3	3	0
	보장구의지학	Orthotics and prosthetics	3	3	0
	임상생체역학실습	Clinical biomechanics practice	3	2	2
	임상물리치료진단실습	Diagnostics for physical therapy practice	3	2	2
	통증관리물리치료실습	Pain management physical therapy practice	3	2	2
노인물리치료실습	Geriatric physical therapy practice	3	2	2	
	소 계		36	32	8
전 공 선 택	전기광선치료학 및 실습	Eletrotherapy and practice	3	2	2
	기능해부학	Functional anatomy	3	3	0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	3	0
	임상실습	Physical therapy practice	3	2	2
	운동치료학 및 실습	Therapeutic exercise practice	3	2	2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	3	0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3	3	0
	병리학	Pathology	3	3	0
	의료법규	Medical acts	3	3	0
	정형물리치료학 및 실습	Orthopedic physical therapy practice	3	2	2
	스포츠물리치료학	Sports physical therapy	3	2	2
	재활의학	Rehabilitation medicine	3	3	0
	정형외과학	Orthopedic surgery	3	3	0
	신경계물리치료학	Physical therapy for nervous system	3	2	2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3	3	0
	실기교육방법론	Practical teaching methods	3	3	0
	치료적마사지 및 실습	Therapeutic massage practice	3	2	2
	방사선관독학	X-ray finding	3	3	0
	한의학 개론	Introduction to oriental medicine	3	3	0
	보건통계학	Biostatistics	3	3	0
	신경외과학	Neurosurgery	3	3	0
	경혈 및 침구학	Meridian and acupuncture	3	2	2
	약리학	Pharmacology	3	3	0
	소아물리치료학	Pediatric physical therapy	3	2	2
	작업치료학	Occupational therapy	3	3	0
	응급처치 및 실습	First aids and cardiac resuscitation	3	2	2
	일상생활동작 및 실습	Activities of daily living	3	2	2
	순환호흡계물리치료학	Physical therapy for cardiopulmonary system	3	2	2
	물리학	Physics	3	3	0
	화학	Chemistry	3	3	0
	심리학	Psychology	3	3	0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3	3	0	
임상의학	Clinical medicine	3	3	0	
기능해부학실습	Functional anatomy practice	3	2	2	
운동처방학	Exercise prescription	3	2	2	
행동교정학	Behavioral modification	3	3	0	
	소 계		108	94	28
	총 계		144	126	36